

‘떠나보면, 함께 살아가야 할’展...내달 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진관우작 '수원청개구리'



정지엽작 'Querenda-당신의 안식을 위하여'



김상연작 '우주를 유영하는 고래'



이재협작 '후페'

사라지고, 잊혀지는 일상 속 소중한 존재들...

환경의 날을 맞이해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멸종 동물과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낸 전시를 마련했다.

오는 7월4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떠나보면, 함께 살아가야 할' 전시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파괴 및 종 다양성 감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왔다. 올해 전시는 우리가 떠나보낸 멸종 동물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멸종 위기 동물을 주제로 한다.

호랑이 조각들이 전시장 바깥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갤러리 내부에는 김 작가가 광주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고래가 넘실대며 쓰레기와 생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전시장 정면 쇼윈도에는 이재혁 작가가 정교하게 만든 종이공예 작품들이 설치돼 마치 살아있는 조류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

도도, 하와이마도, 솔로몬왕관 비둘기와 같은 조류는 K-pg 대멸종에도 살아남은 공룡의 후예들이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을 맞이하고 있다.

권도연 작가의 사진 작업은 인류의 활동이 동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진은 순천, 울진, 영주, 부산에서 촬영했다.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사슴, 산양, 여우의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위 환경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기술 발전과 함께 그 변화의 폭은 커졌다.

그러나 인류의 편리를 증대하기 위해 일으켜온 변화는 지구온난화와 각종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점차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의 멸종을 초래하

는 환경파괴는 인류에게도 위기가 됐다.

현대문명을 지탱하는 대량 생산과 소비에 의해 생겨나는 폐기물은 동식물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다.

김상연 작가와 정지엽 작가는 폐기물을 재료 삼아 생명력 넘치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버려진 양은 남비를 찾아 재활용 센터를 누비는 정 작가가 제작한 거대한

‘시민과 함께’...광주시향, 재개관 기념 무대

오는 16일 예술의전당 대극장...송지원·신동일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홍석원)이 예술의전당 재개관을 기념하는 음악 회로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광주 시민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새 단장을 마친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정식 무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주시향은 오는 16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7회 정기연주회 ‘Beyond’를 개최한다.

이날 연주회에서 광주시향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생상스의 ‘교향곡 3번 C단조 오르간’을 연

주한다.

1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한다. 브람스의 전성기에 내놓은 걸작이자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작곡한 단 하나뿐인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브람스의 풍부하고 깊은 음악성을 담고 있어 당대에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2017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박성용영재특별상을 수상했다. 티보 바

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수상, 칼 닐슨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예후디 메뉴인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관현악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부에서는 생상스 교향곡 3번 C단조 ‘오르간’이 연주된다.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한 생상스가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의 협주를 교향곡 형식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가 돋보인다.

이날 무대에서 협연하는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은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수상 및 입상했다. 유럽을 비롯해

인식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다

모습을 담았다. 국립생태원 홍보대사이기도 한 진관우 작가는 멸종위기 동물의 이름을 반복해서 적으며 동물의 형상을 그려낸다.

현재 진행형인 환경변화로 인한 또 다른 멸종을 막기 위한 노력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떠나보면, 함께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마음속에 새겨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이퀄리브리엄' 여수 순회전 전경

(ACC재단 제공)

ACC '이퀄리브리엄' 여수 순회전

내달 16일까지 엑스포아트갤러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관심을 받은 전시 콘텐츠가 여수, 전주 등으로 본격 유통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7월16일까지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이퀄리브리엄' 순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순회전시는 ACC재단과 여수시 협력으로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0-2021년 전당에서 선보인 '이퀄리브리엄'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의 가치를 다뤄 당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시 제목인 '이퀄리브리엄(Equilib

rium)'은 생태계 종의 종류와 수량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평형' 상태를 말한다. 전시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행위를 모색한다.

이번 여수 전시에서는 장전프로젝트(장준영&전지윤)의 '회귀된 시간'을 비롯해 ▲물이나(인도네시아) '오션 원더랜드'▲유지수 '운산: 오래된 미래'▲김설아 '사자의 은유'▲커진위엔(대만) '전진' 등 총 5개팀 9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장전 프로젝트 '회귀된 시간'은 관람객 표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드론 움직임이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드론 자율 비행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또 양말목을 활용해 물이나 작가의 '오션 원더랜드'를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된다. /최명진 기자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14일까지 남포미술관 특별전

미술관 문턱을 낮추고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전시가 마련됐다.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14일까지 2023박물관 미술관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 사업 일환으로 특별전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이공,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남포미술관이 운영하는 전시다. 소록도 해록예술회원 12명과 (사)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 회원 15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출품한 작품 24점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9일까지 두 명의 감사와 함께 진행된 전시연계 프로그램 '협업으로 공유하는 예술'의 결과물이다. 서투



소록도 해록예술회 박용재회원의 작품 '초원의 집'

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은 "소록도 주민들과 지역 미술 단체가 격의 없이 서로 소통해 만들어낸 이번 전시는 상호 간 연대감 형성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dvertisement for Paradis City featuring a gym, cafe, and tennis court. Includes phone number 062 374 0088 and address in Gwangju.

Advertisement for Sony's Tape to USB/DVD conversion service. Includes benefits like no loss of data and easy view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service center.